

19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어떤 것이 당신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토마스 A. 에디슨

국어 영역

[1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악에서는 시간이 중요하다. 음악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행된다. 전통적 음악에서는 시간이 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은 선적인 것으로 어떤 목적을 향해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시간성으로 일컬어진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 음악 미학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목적론적 시간성에서 ㉠ 벗어난 음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음악을 보여 준 대표적인 예술가로 치머만과 케이지를 들 수 있다.

치머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우주적 차원에서는 연속성을 띠며 진행하지만 정신적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에 이르러, 시간을 ‘공’ 모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는 시간이 선적인 진행에서 벗어나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가 ㉡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동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처럼 시간의 여러 시점(時點)들이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치머만의 생각은 그가 다원적 사고를 추구했음을 보여 준다. 그는 하나의 시간 대신 여러 개의 시간 층을 병치시켜 복합적인 시간성을 드러냈다.

복합적인 시간성은 그의 ‘다원적 작곡 기법’으로 구현되었다. 그는 이 기법을 음악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간의 층이 ㉢ 겹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자신의 대표작인 ‘병사들’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음악가들의 악곡 일부를 그대로 자신의 작품에 가져다 쓰는 콜라주 기법을 ㉣ 써서 서로 다른 시간의 층을 동시에 보여 주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서로 다른 독립적인 박자와 템포를 동시에 한 작품에 사용하여 서로 다른 시간의 층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였다. 그 결과 시간의 순차적인 진행은 해체되어 여러 시간이 복잡하게 엉키게 되었다. 이를 두고 치머만은 ‘모든 음악적 사건들의 동시대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작품 속에 특정한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후대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적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

20세기 현대 음악에서 새로운 차원의 시간성을 보여 주는 또 한 명의 인물은 케이지이다. 그는 음악의 시간성 측면에서 전통적 개념을 송두리째 흔드는 새롭고 흥미진진한 시도를 보여 주었다. 그의 대표작 ‘4분 33초’에서 연주자는 무대에 등장하여 4분 33초라는 시간 동안 한 음도 연주하지 않는다. 그동안 그 시간은 예기치 않은 관객들의 기침 소리, 종이 만지는 소리, 웅성거리는 소리 등 다양한 소리들로 채워진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그는 작가의 의도나 목적에 의해 구조화된 시간성, 박자 구조에 따라 나타난 음악의 예측 가능한 시간성이라는 전통적 의미의 시간성을 부정하는 ‘우연성의 음악’을 구현하였다. 이는 음악의 시간이 전통적 음악에서처럼 음악가의 논리적 조정을 통해서만 구성되지는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케이지는 그의 작품에서 ㉤ 유일하게 한 번만 존재하는 음악의 시간성을 표현했다. 이러한 그의 음악은 비의도적이라는 의도 외에는 아무 의도 없이 만든 음악으로, 완성보다는 과정에 치중하는 비결정성을 띠는 것이었다. 비결정성을 띠는 음악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험적이며, 똑같이 반복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유일하다. 지금까지 음악을 시간의 연속성으로 이해했다면, 이제 그 연속성은 완전히 뒤죽박죽되었다. 음악의 시간성이 작품의 구조와 관련이 있는 만큼, 그의 음악에서는 전통적 시간성이 ㉥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국어 영역

1.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대 음악에 나타난 전통적 시간성 해체
- 치머만과 케이지의 음악을 중심으로
- ② 20세기에 나타난 음악 미학의 변화
- 음악의 시간성과 공간성을 중심으로
- ③ 현대 음악에서의 작곡 기법의 변화
- 치머만의 다원적 작곡 기법을 중심으로
- ④ 현대 음악이 다원주의적 사고에 미친 영향
- 케이지의 우연성 음악을 중심으로
- ⑤ 음악에서의 시간의 중요성
- 음악의 시간성과 작품 구조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2.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성부1	Debussy (드뷔시) <i>Jeux</i>	♩. = 72 (♩ = 216)	3
성부2	Mozart (모차르트) <i>Klavierkonzert C-Dur, KV 467</i>	♩ = 134 (♩ = 268)	5
성부3	Greg. Choral (그레고리오 성가) <i>"Veni creator spiritus"</i>	♩ = 45-50	1

위 악보는 치머만의 '2대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대화' 중 일부이다. 창작 시기가 다른 드뷔시의 작품, 모차르트의 작품, 그레고리오 성가를 성부 1, 2, 3에 배치하고, 개별 성부의 박자와 템포는 다르게 구성했다.

- ① 서로 다른 시대의 음악들을 개별 성부로 구성하여 복합적인 시간성을 드러내려 했겠군.
- ② 성부 1, 2, 3을 동시에 연주하는 것은 시간을 '공' 모양으로 인식한 시간관과 관련이 있겠군.
- ③ 각 성부에 독립적인 박자와 템포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시간의 층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겠군.
- ④ 드뷔시, 모차르트, 그레고리오 성가 음악의 일부를 가져다 쓰는 콜라주 기법을 활용하고 있군.
- ⑤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조화를 지향하는 주제 의식을 통해 모든 음악적 사건들의 동시대성을 구현하려 했겠군.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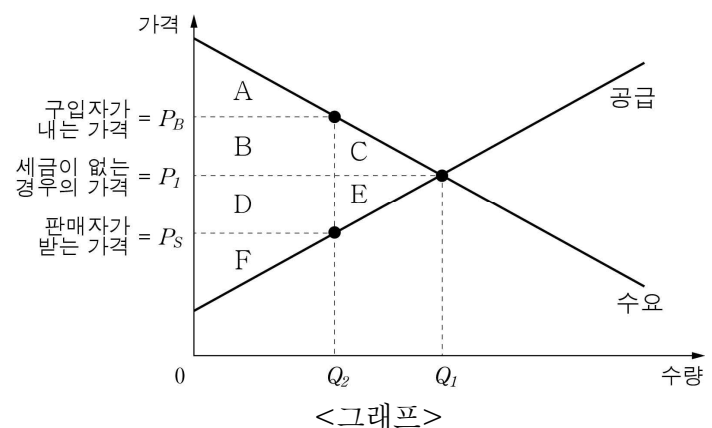
- ① 음악가의 의도나 목적에 의해 구조화되지 않는 '우연성의 음악'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 ② 과정보다 완결성을 중시하는 음악을 창작할 때에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는 것이다.
- ③ 음악가의 논리적 조정을 통해 음악의 시간성이 예측 가능한 음악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 ④ 음악의 시간을 선적으로 구성하여 관객이 음악 진행에 대해 짐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 ⑤ 목적론적 시간성을 구현하려는 음악가의 의지가 작품에서 비결정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4. ㉠~㉡를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탈피한
- ② ㉠: 변모할
- ③ ㉡: 중첩된
- ④ ㉡: 활용하여
- ⑤ ㉡: 와해되었다고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시오.

일반적으로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득이 감소하는 양과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는 양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래프>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이 점에서의 균형 가격은 P_1 이고 균형 거래량은 Q_1 이다. 균형 가격 P_1 , 균형 거래량 Q_1 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해 얻게 되는 이득이 극대화된다. <그래프>의 수요 곡선은 수요자의 지불 용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수요 곡선 아래, 균형 가격 P_1 의 가격 수준 위에 있는 $A+B+C$ 이다.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은 생산자의 비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균형 가격 P_1 의 가격 수준 아래, 공급 곡선 위에 있는 $D+E+F$ 이다. 이때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인 $A+B+C+D+E+F$ 이다.

<그래프>에서 ㉠ 세금이 $\overline{P_S P_B}$ 만큼 부과되면, 시장은 원래의 균형 상태를 벗어난다.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P_1 에서 P_B 로 상승하여 소비자 잉여는 A 가 된다.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P_1 에서 P_S 로 낮아져 F 가 생산자 잉여가 되고, 거래량은 Q_1 에서 Q_2 로 감소한다. $\overline{P_S P_B}$ 에 Q_2 를 곱한 값인 $B+D$ 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된다. 이때 B 는 구입자가 부담하는 조세, D 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세이다. 세금 부과 후의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조세 수입의 합인 $A+B+D+F$ 이다. 세금 부과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세금 부과로 인해 총 잉여가 $C+E$ 만큼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C+E$ 는 총 잉여의 감소분으로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한다.

세금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 달라진다.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에 대해 수요량과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측정한 지표이다.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과 공급량이 큰 폭으로 변할 때 가격 탄력성이 크다고 말하는데, 대체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크고 기울기가 급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작다. 수요 곡선과 세금의 크기는 동일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에 의한 경제적

국어 영역

순손실이 커진다. 반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이 작아진다. 공급 곡선과 세금의 크기가 동일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를 때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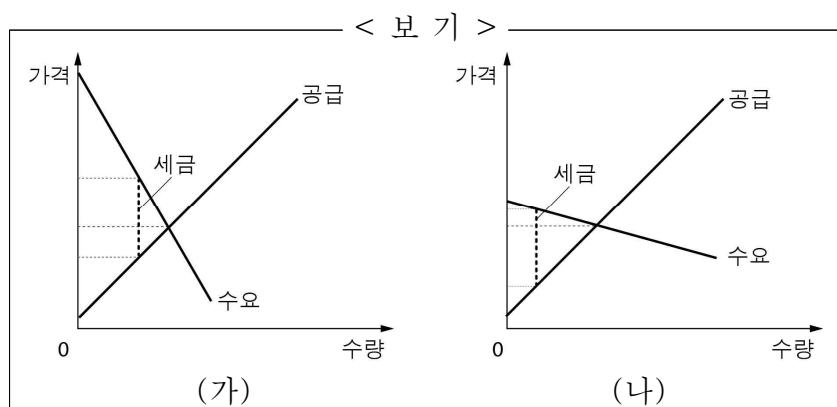
세금 부과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은 경제적 논쟁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금 부과가 커다란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지지한다. 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을 늘리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라도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 소비자 잉여: 구입자의 지불 용의 금액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 * 생산자 잉여: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공급자의 판매 용의 금액을 뺀 나머지.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세의 개념과 의미가 변천해 온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조세의 유형과 특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 ③ 조세 부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조세 부과에 대한 상반된 이론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있다.
- ⑤ 조세 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 (나)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는 동일한 크기의 세금이 부과된 상태이다. 세금 부과 이전의 (가), (나)의 균형 거래량은 동일했다. (가), (나)의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동일하지만, (가), (나)의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다르다.

- ① 생산자 잉여는 (가)가 (나)보다 더 크다.
- ② 정부의 조세 수입은 (나)가 (가)보다 더 크다.
- ③ 구입자가 부담하는 조세는 (가)가 (나)보다 더 크다.
- ④ 세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은 (나)가 (가)보다 더 크다.
- ⑤ (나)의 수요는 (가)의 수요보다 가격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7.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부가 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비에 비례하여 세금 부담의 정도가 높아진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가 가치세로 인한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은 크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소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가격에 따른 수요량 변화가 크지 않은 식료품, 의약품 등의 생활필수품에서는 부가 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최근 부가 가치세 면세 범위 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①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를 면세해 준 것은 생활필수품에 대한 저소득층의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지 않게 한 것이겠군.
- ② 가격 탄력성이 큰 상품들까지 부가 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면세 범위를 넓히면 그 상품들의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겠군.
- ③ 부가 가치세의 부과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이겠군.
- ④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단일 세율을 적용해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⑤ 저소득층의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필수품에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면 그 상품에 대한 저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나 정부의 조세 수입은 감소하겠군.

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하여 얻게 되는 이득이 줄어들게 된다.

㉡. 시장 거래량이 세금 부과 이전의 균형 거래량보다 줄어들게 된다.

㉢. 구입자가 내는 가격이 세금 부과 이전의 균형 가격보다 낮아진다.

㉣. 정부의 조세 수입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의 합보다 커진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국어 영역(B형)

[9 ~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윤 승상의 아들 지경은 사리 분별력과 문장력이 뛰어나 과거에서 장원을 한다. 지경은 사랑하는 사이인 최연화와 혼례를 올리던 중 임금의 부름을 받고 궁에 가 자신이 귀인 박 씨의 딸인 연성 옹주의 남편으로 간택된 사실을 알게 된다. 부마가 된 지경은 옹주를 멀리하고 연화를 만나기 위해 밤마다 연화의 방에 숨어들기를 반복한다. 그러던 중 지경은 연화의 부친인 최 공에게 발각된다.

국어 영역(B형)

공이 애련하여 등을 쓰다듬어 가로되,
“네 어찌 그리 미혹한가. 용주를 중대하여 자녀를 낳고 살며 용주를 잘 타이르면, 네 부친과 주상(主上)께 이런 절박한 사연을 고할 것인즉, 주상은 인군(仁君)이시라 허하시리니, 그때 빛나게 해로하기는 생각지 아니하고, 갈수록 용주를 박대하며 귀인의 험담을 이르고 복성군을 미워하며, 밤을 타 도망하여 날마다 내 집에 오니, 용주가 알면 화가 적지 아니하리니, 끝을 어이할꼬.”

부마가 가로되,

“넌들 어찌 모르리이까마는 용주는 천하 괴물 박색이고, 귀인은 간악이 견줄 데가 없고, 복성군은 남 혈기 심한데 홍명화, 홍상이 박 귀인과 결탁하여 필연 그옥한 흉계를 지을지라, 용주를 후대하고 그 당에 들었다가 멸문지환(滅門之患)을 면치 못하리니, 아내를 애중하고 용주를 박대하면 불과 빙부와 부친의 죄가 큰즉 정배(定配)요, 적은즉 삭직(削職)이요, 소저는 귀양밖에 더 가리이까. 싫은 것을 강인하고 그른 것을 어이 견디리이까.”

공이 말이 없다가,

“어찌하든 밤이 깊었으니 들어가 자라.”

생이 사례하고 이후로는 주야로 오니, 공과 소저가 민망하여 아무리 간하여도 듣지 아니하더니, 윤 공이 알고 불려 대책하고 용주 궁을 떠나지 못하게 하나, 산 사람을 동여 두지 못하고, 날마다 최 씨에게 가니 용주 어찌 모르리요. 부마 내당에 들어간 때 용주 가로되,

“내 비록 용렬하나 임금의 딸이요, 빙례로 부마의 아내가 되었거늘 업수이 여겨 천대하기 심하도다. 최 씨를 얻어 고혹*하였으되 태부(太夫)는 두 아내 두는 법이 없거늘, 부마 어찌 두 아내 있으리요. 최홍일은 어떠한 사람이완대 부마에게 채취를 주어 주상과 첩을 업수이 여감이 심하뇨.”

[A] 지경이 정색하여 가로되,

“내 할 말을 용주 하시는도다. 일국에 도령이 가득하거늘, 이미 얻은 사람을 내 어찌 조강지처를 버리고 부귀를 탐하여 용주와 화락하리요. 용주 만일 최 씨를 청하여 한 집에서 화목하기를 황영*을 본받을진대, 최 씨와 같이 공경하고 화락하려니와, 투기하여 나를 원망한즉 평생 박명을 면치 못하리로다.”

용주 웃으며 가로되,

“당초에 조강지처 있는지 없는지 내 심궁 처녀로 어찌 알리요. 상명으로 부마의 아내가 되어 나온 지 거년이나, 천대가 태심하여 행로(行路) 보듯 하니, 어찌 통한치 아니하리요.”

지경이 웃으며 가로되,

“여염 사람이 부부 간에 하사하되 용주 너무 지극 공경하여 구실 삼아 하루에 두어 번 들어가 앉기로 편치 못하고 쭈어 앉으니 이밖에 더 공경하리요. 주상이 현명하시니 나를 그르다 아니하실지라. 본대 간악한 후궁은 두려워 아니하니, 아내 사랑하는 묘리를 배워다가 가르치소서.”

하고 크게 웃고 소매를 떨치고 나오니, 용주 종일토록 울더니, 그 후 입궐하여 박 씨더러 일일이 고하며 설위하니, 박 씨 대로하여 상께 이대로 주하여,

“최 씨를 없이하고 부마를 죄 주어 주오이다.”

청하니, 상이 윤지경을 불러 책망하여 가로되,

“네 아넌즉 용주요 정처(正妻)란 것이 유의 중하고, 또 여염 필부 회매와 달라 금지옥엽(金枝玉葉)이어늘, 네 최 씨를 퇴

채하였거늘, 퇴혼* 취하라 한 명을 거역하고 감히 교통하여 쫓기를 위법하는가. 네 또 빙모*를 간악한 유로 꾀방한다 하니, 네 무슨 일로 보았는가. 네 또한 빙자지의 있고 처부모라 하였으니, 어버이를 꾀방하는 자식이 어디 있으리요.”

지경이 머리를 땅에 닿아 사죄하여 가로되,

“하교 이리하시니 황공하여이다. 신이 외람하오나 소회를 세세히 전달하리이다. 참판 최홍일은 신의 아버지 종매부라. 어려서부터 죽장지의와 아버지 형제지의로 신이 부형같이 공경하고 홍일이 신을 자식같이 사랑하옵더니, 조강 윤 씨 작고 하옵고 후처 이 씨 들어와 생녀하오니, 자못 총혜하고 자색이 뻐어나오니, 아버와 홍일이 서로 약속하여 피차 서로 소신은 최가 사위 될 줄 알고, 최 씨도 소신의 아내 될 줄 아옵더니, 전년 봄에 혼인날을 정하와 신이 최가에 가 전안하옵고 배례를 겨우 하온 후, 명패를 급히 받아 신이 합친을 못 하고 들어오니, 부마위를 주시고 연성 용주를 맡기시니, 신이 과연 용주의 탓이 아니온 줄 아오되, 최 씨는 어려서부터 서로 보아 사랑하옵던 마음이 깊었삽고, 용주로 하와 이제까지 참았사오니 부귀빈천이 다르오나, 원역*하옵은 비상지원*이 없지 아니하오리까. 용주를 대접하고 최 씨를 다른 데 출가하라 하신들 언약이 깊고 빙채와 교배합환하였으니, 어찌 다른 데로 신의를 버리고 갈 생각을 하리이까마는, 엄교를 두려워 홍일이 신을 거절하여 오지 못하게 하오나, 홍일을 속이고 가만히 가서 만나온 일이 있사오나, 용주 신에게 온 지 겨우 거년에 신정의 뜻을 모르며, 투기하여 신을 준책하옵다가 또 전하게 고하니 이도 여자의 부덕(婦德)이라 하시리이까.”

상이 탄식하여 가로되,

“네 나이 어리되 소견이 높아 급암*의 직간(直諫)을 가졌도다. 그러나 용주는 내 딸이라, 생심도 막대치 말라.”

— 작자 미상, ‘윤지경전’ —

* 고혹: 아름다움이나 매력 같은 것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림.

* 황영: 중국 순제의 두 황비인 아황과 여영.

* 퇴혼: 정한 혼인을 어느 한 편에서 물림.

* 빙모: 장모.

* 원역: 원통한 누명을 써서 억울함.

* 비상지원: 억울한 옥살이로 인한 원한.

* 급암: 황제에게 간(諫)하는 것을 잘했던 중국 전한의 정치가.

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경’은 자신이 부마가 된 것이 ‘용주’의 탓은 아니라고 말했다.
- ② ‘임금’은 ‘귀인’을 대하는 ‘지경’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 ③ ‘윤 공’은 ‘지경’이 용주 궁을 떠나지 못하게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 ④ ‘최 공’은 밤마다 ‘연화’를 찾아오는 ‘지경’의 처지에 대해 안쓰럽게 여겼다.
- ⑤ ‘용주’는 ‘지경’이 부마로 정해지기 전부터 ‘지경’과 ‘최 씨’의 사이를 알고 있었다.

국어 영역(B형)

1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윤지경전」은 애정 소설로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연을 위해 여러 장애와 시련에 맞서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최 씨를 정처(正妻)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주인공의 소신 있는 태도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주인공의 태도는 당대 독자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는 처첩(妻妾)을 엄격히 구별하고 정처에 대한 남편의 도리를 중시했던 당대의 사회적 인식과 관련이 있다. 또한 조선 중종 때 후궁인 박 씨와 그의 아들 복성군을 중심으로 외척 세력이 형성되고 그들에 의해 정치 질서가 문란해졌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점도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관련해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의 언행을 통해 외척 세력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박 귀인’, ‘홍명화’, ‘홍상’ 등이 ‘그윽한 흥계’를 꾸밀 것이며 그들이 결국 큰 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경’이 생각한 데서 외척 세력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② ‘그른 것을 어이 견디리이까’라는 말은 ‘급암의 직간을 가졌도다’라는 ‘임금’의 말과 함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지경’의 태도를 부각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③ ‘간악한 후궁은 두려워 아니하나니’라는 ‘지경’의 말은 ‘최 씨’와 ‘옹주’의 인물 됴됨이의 차이를 드러낸 말로 처첩을 엄격히 구별했던 당대의 사회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④ ‘부마를 죄 주어 주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귀인’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연을 위해 ‘지경’이 맞서야 하는 장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 ⑤ ‘최 씨’에 대한 ‘신의를 버리고 갈 생각’이 없다는 ‘지경’의 말은 정처(正妻)에 대한 도리를 지키고자 한 것으로 당대 독자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말이라고 할 수 있어.

11.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옹주’는 ‘지경’에게 닥칠 일을 예견하며 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② ‘옹주’는 ‘지경’이 신분의 차이를 들어 자신을 멀리했던 것을 비판하고 있다.
- ③ ‘지경’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데 ‘옹주’가 한 말의 논리를 활용하고 있다.
- ④ ‘지경’은 ‘옹주’가 부귀를 탐해 자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문제 삼고 있다.
- ⑤ ‘지경’은 ‘옹주’가 ‘옹주’를 위하는 자신의 마음까지 왜곡해 가며 ‘최 씨’를 투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부귀라 구(求)치 말고 빈천이라 염(厭)치 말아
인생 백년이 한가할사 사니 이 내 것이
백구야 날지 말아 너와 망기*하오리라

<제1곡>

천심 절벽 섰난 아래 일대 장강(一帶長江) 흘러간다
백구로 버줄 삼아 어조 생애(漁釣生涯) 늘거가니
두어라 세간 소식(世間消息) 나난 몰나 하노라

<제2곡>

㉠ 보리밥 과 생채를 양(量) 맛좌 먹은 후에
모재*를 다시 쏘고 북창하(北窓下)에 누엇시니
눈 압해 태공 부운*이 오락가락 하돏다

<제3곡>

공산리(空山裏) 저 가난 달에 혼자 우난 저 두견아
낙화 광풍에 어나 가지 으지 하리
백조(百鳥)야 한(恨)하지 말아 내곳 설워 하노라

<제4곡>

저 가막이 좃지 말아 이 가막이 좃지 말아
야림 한연*에 날은 초차 저물거날
어엿불사 편편 고봉*이 갈 바 업서 하돏다

<제5곡>

서산에 해 저 간다 고기 빅 췌단 말가
죽간*을 둘러 뵈고 십리 장사(十里長沙) 내려가니
연화* 수삼 어촌(數三漁村)이 무릉인가 하노라

<제6곡>

— 권구, 「병산육곡」 —

- * 망기 : 속세의 일이나 욕심을 잊음.
* 모재 : 따로 지붕을 이은 집.
* 태공 부운 : 넓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 야림 한연 : 들판 숲 속의 차가운 안개.
* 편편 고봉 : 훨훨 나는 외로운 봉황.
* 죽간 : 대나무 장대. 여기서는 대나무로 만든 낚싯대.
* 연화 : 안개가 피어오르는.

(나)

집 앞에는 조그만 시내가 있다. 이 시내는 냉악에서 발원하여 십 리쯤 흘러 이곳 율파진에 이른다. 집 앞에 이르러서 조금 깊어지기는 하지만 겨우 무릎이 잠기는 정도이고, 폭은 겨우 한 길 남짓 된다. 시내의 양쪽 언덕에는 오래된 버드나무 두어 그루가 있는데, 가지가 무성하여 냇물을 뒤덮을 정도이다. 이 시내와 버드나무가 서로 어우러져 냇물은 상쾌함을 풍기고 버드나무 또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마음에 들어, 앉고 누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로 하였다.

마침내 젊은이들과 함께 궁리하여 규모를 정하고 이웃의 친구에게서 시내를 가로지를 만한 상수리나무 두 개를 얻어 오고 젊은이들에게 쓸 만한 나무 수십 개를 베어 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긴 나무는 세로로 놓고 짧은 나무는 가로로 놓아 칩덩굴로 단단하게 엮어서 평상을 만들었다. 이것이 시내에 걸쳐 있으므로 ‘계상(溪床)’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다만 그 지세가 낮고 좁아 훤히 탁 트인 경관이 없어 아쉬웠다.

그러나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속세의 잡다한 일들을, 이 계상에 의지하여 모두 다 나의 이목(耳目)에서 떨쳐 버릴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그윽하고 고요한 정취를 느낄 수 있으니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냉악이 동북쪽으로 높이 치솟아 있으며, 깎아

국어 영역(B형)

지른 절벽이 천 길 높이로 하늘과 맞닿아 있고, 오래된 소나무와 전나무가 산등성이와 계곡에 우거져 있어, 나의 명상을 일으키고 나의 흥취를 북돋아 준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니**, 여기서야말로 번거로운 일들을 말끔히 잊고 흥겹게 지낼 만하다. 쉬기도 여기서 쉬고 생활도 여기서 하고 책도 여기서 보고 시도 여기서 읊으니, 이곳에서 못하는 일이 없다. 간혹 해가 질 무렵이면 심부름하는 아이가 ㉠ **탁주한 사발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짝옥 들이키고 나면 막힌 가슴 속이 절로 트여 몸의 원기가 왕성하게 솟아오른다.

그러면 드디어 일어나 망건을 짓혀 쓰고 옷깃을 느슨히 하고 이리저리 거닐면서 둘러본다. 높은 산은 어찌 저리도 낮으며 먼 하늘은 어찌 저리도 가까운 것일까? 몸은 **한 평상을** 떠나지 않았는데, 정신은 **우주 공간을 유람한 것 같으니**, 이 어찌 깊은 운치가 아니겠는가? 때로 나른하고 싫증이 나면 스스로 팔 베고 엎드려 흐르는 **냇물**을 바라본다. **물고기들이 떼 지어** 작은 물결을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제 나름대로 즐거워하는 모습은 더욱 보고 즐길 만하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보내니, 이것이 계상에서의 즐거움이다.

이 평상은 애초에 계획했던 일이 아니라 우연히 만든 것으로 질박하고 졸렬한 채로 놓아두고 애써 깎고 다듬지 않았기에 나에게 적합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떨어져 있고, 당우*에 이어져 있지도 않다. 또 땅에 닿아 있지 않고 냇물 위에 걸쳐 있어 그 아래로는 물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흐르고 있으니, 내가 찾던 진정한 즐거움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무릇 만물은 원래 붙어 있는 곳이 없을 수 없지만, 붙어 있는 곳에 집착하여 얽매어 있어도 안 되는 것이다. 오직 자연의 이치에 맡겨서 외물(外物)의 유혹에 이끌리지 말고 사심(私心) 없이 물(物)이 오가는 대로 두어야 한다. 나아가 천하의 일에 있어서 오로지 주장함도 없고,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도 없어야 한다. 공평하고 바른 마음으로 만나는 바에 따라 마땅하게 잘 처리하고 **때에 따라 잘 변화**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붙어 있으면서도 **한곳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 궁하여 뉘우침이 있는 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

— 장현광, 「계상설」 —

* 당우: 규모가 큰 집과 작은 집을 아울러 이르는 말.

12.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체념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② 번잡한 속세와 거리를 두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 ③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 ④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 ⑤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 있다.

13.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곡>에서 ‘부귀’를 구하지 말고 ‘빈천’을 싫어하지 말라는 것은 ‘망기’를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② <제2곡>에서 ‘천심 절벽’은 ‘백구’를 벗으로 삼는 ‘어조 생애’를 어렵게 하는 장애물에 해당한다.
- ③ <제4곡>에서 ‘낙화 광풍’에 의해 의지할 곳 없이 ‘혼자’ 우는 ‘두견’의 처지는 ‘설워 하’는 화자의 심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④ <제5곡>에서 ‘저 가막이’가 ‘쫓’는 것과 ‘이 가막이’가 ‘쫓’는 것은 ‘편편 고봉’이 놓인 부정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 ⑤ <제6곡>에서 ‘수삼 어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삶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가 ‘무릉인가 하노라’로 드러난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장현광의 호는 ‘여현(旅軒)’이다. ‘여(旅)’는 나그네라는 뜻이고, ‘현(軒)’은 집이라는 뜻이다. ‘여현’이란 말에는 사방 모든 것이 자신의 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그에게 ‘여현’은 일정한 장소와 고정된 형태가 없는 것으로 정신적인 자유로움을 추구하며 편안함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그는 진정한 즐거움이란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① ‘버드나무가 서로 어우러져’ 있는 ‘냇물’은 고정된 형태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글쓴이에게 만족감을 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계상’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계상’을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여현’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글쓴이가 ‘한 평상’에서 ‘우주 공간을 유람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계상’이 글쓴이에게 정신적인 자유로움을 주는 공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냇물’ 속에서 ‘떼 지어’ 놀고 있는 ‘물고기들’은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물고기’들의 즐거움은 글쓴이가 지향하는 ‘진정한 즐거움’과 상반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⑤ 글쓴이가 말한 것처럼 ‘때에 따라 잘 변화’해 ‘한곳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군.

1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은 모두 현실에 대응하는 자세를 성찰하도록 이끄는 소재이다.
- ② ㉠, ㉡은 모두 자연과의 조화와 합일을 이루는 계기가 되고 있는 소재이다.
- ③ ㉠, ㉡은 모두 강호 공간에서의 자기 절제로 인한 내적 갈등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 ④ ㉠은 소박한 삶의 모습을, ㉡은 자적하는 삶 속에서 고조된 흥취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⑤ ㉠은 외로운 처지를 한탄하는, ㉡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소망하는 태도를 부각하는 소재이다.

해설 ①⑤①②③ ②①①⑤③ ③②②④④

[1~4] (예술) 오희숙, ‘음악 속의 철학’

이 글은 음악의 전통적 시간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음악적 시간성을 추구한 치머만과 케이지의 음악을 소개하고 있다. 그들이 추구한 음악에 대한 생각은 치머만의 ‘병사들’, 케이지의 ‘4분 33초’라는 작품에 각각 나타나 있다고 하고 있다.

1.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이 글은 전통적 음악의 시간성에서 탈피한 새로운 음악의 시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표제는 ‘현대 음악에 나타난 전통적 시간성 해체’가 적절하며, 부제로는 ‘치머만과 케이지의 음악을 중심으로’가 적절하다.

2. [출제의도] 글을 바탕으로 제시된 자료를 탐구한다.

치머만은 서로 다른 시대의 음악가들의 음악 일부를 가져다 쓰는 방식을 통해 서로 다른 시간의 층을 보여 주었다. 이는 전통적인 음악의 시간성을 부정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음악 속에 특정한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기>의 음악을 두고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조화를 지향하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추리한다.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의 의미는 케이지의 작품 ‘4분 33초’를 통해 추리할 수 있다. 그는 작가의 의도나 목적에 의해 구조화된 시간성을 부정하였는데, 이는 ‘우연성의 음악’을 통해 구현되었다.

4.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를 파악한다.

‘변모’는 ‘모양이나 모습이 달라지거나 바뀜. 또는 그 모양이나 모습.’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와 바뀌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8] (사회) 김경환, ‘조세의 경제적 비용’

이 글은 세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세금 부과로 인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며, 이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 달라진다는 내용이다.

5.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세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순손실, 가격 탄력성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6.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시각 자료에 적용한다.

부과된 세금의 크기가 동일하고 공급 곡선이 동일할 때, (가)는 (나)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고 정부의 조세 수입은 더 크다.

[오답풀이] ㉡ (나)의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가)의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완만하다. 이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것이다.

7.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생활필수품에 부가 가치세를 면세해 주는 것은 세금으로 인해 생활필수품에 대한 저소득층의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세금이 부과되어 원래의 균형 상태를 벗어나면,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하며 얻게 되는 이득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시장 거래량은 세금 부과 이전의 균형 거래량보다 줄어들게 된다.

[9~11] (고전소설) 작가 미상, ‘윤지경전’

애정 소설로 분류될 수 있는 작품이지만 강한 역사의식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지경이 여러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 사랑하는 사람인 연화와 결연해 행복하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내용이다. 조선 중종 때의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적절히 조화시켜 당대의 외척 세력에 대한 비판 의식을 보여 주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9. [출제의도] 인물에 관한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옹주’는 ‘당초에 조강지처 있는지 없는지 내 심궁 처녀로 어찌 알리요.’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옹주’가 ‘지경’이 부마로 정해지기 전에 ‘지경’과 ‘최 씨’의 사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최 공’은 밤마다 연화의 방에 숨어들다 자신에게 들킨 ‘지경’이 애련하여 등을 쓰다듬으며, ‘끝을 어이할꼬’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최 공’이 ‘지경’을 안쓰럽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10. [출제의도]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 작품을 감상한다.

‘간악한 후궁’은 ‘귀인 박 씨’를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간악한 후궁은 두려워 아니하나니’라는 지경의 말은 장모인 ‘귀인 박 씨’에 대한 ‘지경’의 부정적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최 씨’와 ‘옹주’의 인물 됴됨이의 차이를 드러낸 말이 아니다.

11.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A]에서 ‘옹주’는 ‘지경’에게 ‘부마 어찌 두 아내 있으리요.’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한 아내만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말에 대해 ‘지경’은 ‘내 할 말을 옹주 하시는도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미 얻은 사람을 내 어찌 조강지처를 버리고 부귀를 탐하여 옹주와 화락하리요.’라고 말하고 있다. ‘옹주’가 말한 것처럼 자신은 ‘최 씨’ 외에 다른 아내를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경’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데에 ‘옹주’가 한 말의 논리를 활용한 것이다.

[12~15] (고전시가복합) (가) 권구, ‘병산육곡’ / (나) 장현광, ‘계상설’

(가) 권구, ‘병산육곡’

이 작품에는 향촌에 머무르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난 한편, 정치 상황에 대한 근심도 드러나 있다.

(나) 장현광, ‘계상설’

시내에 걸쳐진 평상에서 머무르며 느낀 즐거움을 쓴 고전수필이다. 평상 밑으로 흐르는 물은 한 곳에 머

물지 않고 자연의 이치에 몸을 맡겨 외물의 유혹에 물들지 않으려는 작가의 삶의 태도와 통하는 것이다.

12.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의 <제2곡> 중장과 (나)의 세 번째 단락을 통해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가 번잡한 속세와 거리를 두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출제의도] 화자의 태도를 이해한다.

‘천심 절벽’은 화자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의 자연적 배경이다. 화자가 세속의 일을 잊고 자연과 더불어 ‘어조 생애’를 즐기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 것이다. ‘어조 생애’를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다.

14. [출제의도]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 작품을 감상한다.

‘물고기들이 때 지어 작은 물결을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제 나름대로 즐거워하는 모습’은 ‘자연의 이치에 맡겨서 외물의 유혹에 이끌리지 말고 사심 없이 물이 오가는 대로 두어야 한다.’에서 드러나고 있는 글쓴이의 삶의 태도와 상통하는 것이다.

15.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를 이해한다.

‘자적’은 ‘아무 속박을 받지 않고 마음껏 즐김’이라는 뜻이다. ㉠은 소박한 음식을 통해 소박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재이고, ㉡은 계상에서 자적하는 삶 속에서 고조된 흥취를 드러내는 소재이다.